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성경의 문제들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28장 '성경의 문제들', 295–318쪽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먼저 성경의 '난제'가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난제는 교회가 처음부터 알고 씨름해 온 문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난제를 다 푸는 능력에 기대지 않는다고 못 박는다. 이어서 난제를 아홉 갈래로 나눈다. 신학, 윤리, 사실, 사실 사이의 일관성, 신약의 구약 인용, 역사, 장르, 과학, 연대·저자가 그것이다. 갈래마다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 본문을 더 꼼꼼히 해석하고, 모순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따지며, 비판 뒤에 숨은 전제를 드러낸다. 끝으로 모든 난제 앞에서 던질 질문 하나로 모은다. “성경이 실제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의 무오성은 그 주장이 참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 절별 정리

📜 0. 들어가며: 난제는 오래된 문제이고, 믿음은 해결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

프레임은 성경에 난제가 많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가이슬러와 호웨의 『비평가가 물을 때』는 800개가 넘는 난제를 다룬다고 소개한다. 이 책은 성경이 성경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다루는 조직신학 책이다. 그래서 난제를 하나하나 풀기보다, 앞 장들에서 세운 교리와 인식론(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아는지에 관한 이론) 위에서 난제를 다루는 '지침'을 주려 한다. 그는 역사부터 짚는다. 주후 178년 무렵 플라톤주의 철학자 셀수스가 기독교를 비판했고, 오리겐이 『셀수스에 반대하여』로 길게 답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겪는 난제가 이미 많이 나온다.

하나라도 입증된 적은 없다는 말은 사실이다. '이건 오류다'라는 주장을 무너뜨리는 데는 가능한 해결책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프레임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어떤 난제도 기독교 인식론의 바탕 전제(모든 생각의 출발점으로 삼는 믿음)를 뒤엎을 만큼 무겁지 않다. 성경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기 때문이다.

1. 난제는 2세기부터 알려진 오래된 문제다
2. 문제마다 여러 답이 나왔고 꽤 많은 답이 타당하다
3. 믿음은 난제를 푸는 능력에 기대지 않는다
4. 오류를 반박하려면 가능한 설명 하나면 된다
5. 어떤 난제도 기독교의 전제를 뒤엎지 못한다

> **(직접 인용 없음)**
> 프레임은 앞 장에서 다룬 '성경의 진리를 뒷받침하는 풍부한 증거'에 기대어 논의를 시작한다

“우리의 신앙은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 1. 신학적 문제

신학적 난제란 교리끼리 서로 충돌해 보이는 문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인가(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어떻게 함께 가는가?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과 악은 어떻게 함께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은 어떻게 시간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선하게 지음받은 아담은 어떻게 타락했는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어떤 관계인가? 대신 지는 희생은 개인의 책임과 어떻게 맞는가? 프레임은 이 영역에서 우리가 '신비'(성경이 다 말해 주지 않고 우리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와 마주친다고 인정한다. 성경 속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석하지 않고 그분의 위대하심에 압도당했다. 오히려 신비가 하나도 없다면 그게 가장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신비가 곧 오류는 아니다. 비판은 대개 “자기모순”이라는 논리적 비판이다.

모순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한 본질'이시고 '세 인격'이시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링컨에게 팔이 둘이고 심장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순이 아니다. 본질과 인격의 뜻을 정확히 정의하지 못해도 모순이라는 비난은 성립하지 않는다. 뜻 모를 말 '빌브 둘, 글러드 하나'가 신비롭기는 해도 모순은 아닌 것과 같다.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주권과 책임도 두 낱말이 무엇을 뜻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 신학적 난제의 자리는 신비의 영역이다
2. 다 이해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3. 신비는 오류와 다르다
4. 같은 뜻·같은 때·같은 측면일 때만 모순이다
5. 모순이라고 말하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다

> **(직접 인용 없음)**
> 이 절은 구절 대신 논리 분석으로 답한다. 자세한 논의는 프레임의 『신지식론』 등으로 넘긴다

"인간 이성이 완전히 이해하는 하나님은 결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 2. 윤리적 문제

윤리 비판은 세 방향에서 온다. 성경 인물의 행동, 하나님과 예수님의 행동,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이다. 먼저 성경이 묘사한다고 해서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도 큰 죄를 지었다. 로마서 3:23의 말씀대로라면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도 비판이 쏟아진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보내는가?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은가? 동성애를 정죄하는 성경은 낡지 않았는가? 프레임의 답은 이렇다. 유신론이라는 바탕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부터 흔들린다. 왜 현대 사회의 견해는 받고 성경의 견해는 버려야 하는가? 세속 철학의 세 윤리 이론도 각각 한계가 있다. 내 느낌과 양심을 따르는 실존주의 윤리는 잔혹한 행위까지 정당화했다. 행복의 총량을 따지는 목적론적 윤리는 다수를 위해

절대적인 윤리는 절대적인 인격에게서만 나온다. 그 하나님이 윤리의 궁극 기준이시라면, 그분을 비난할 자리는 없다.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씨름할 수 있지만, 원칙 자체는 우리에게 법이다. 지옥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유를 말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께 반역한 죄는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 찬양이 삶의 전부인 천국은 그들에게 행복한 곳이 아닐 것이다. 그래도 “왜 그렇게 영원히 계획하셨는가”라는 가장 깊은 질문은 남는다. 거기서는 로마서 9:20처럼,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와 내 자율적 사고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한다.

1. 성경의 묘사가 곧 승인은 아니다
2. 하나님 없이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서지 않는다
3. 세속 윤리 이론 셋은 모두 한계가 있다
4. 절대 윤리는 절대 인격에게서 나온다
5. 가장 깊은 질문 앞에서는 말씀을 믿을지 택한다

> **로마서 3:23**
> 위대한 인물도 죄인이다. 그들의 죄를 성경이 인정한 것이 아님을 보인다
>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로마서 9:20**
>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한 가장 깊은 반문에 성경이 주는 마지막 답
>
>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 3. 사실적 문제

성경이 어떤 사실을 잘못 말했다는 비판이다. 한 신학자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가 아니라며 무오성(성경이 주장하는 바에 틀림이 없다는 교리)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태복음 13:31-32가 근거였다. 프레임은 예수님이 당시 팔레스타인 농부가

상황을 말하는 본문을 온 세상에 해당하는 보편 진술로 읽을 때 생긴다. 성경은 높은 신비를 다룰 때가 아니면 보통 사람의 말투로 말한다. 비유를 식물 분류학 교과서처럼 읽으라는 요구야말로 무책임하다(각주에서 프레임은 이렇게 덧붙인다.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읽는다'는 비난은 이 경우 오히려 비평가에게 돌아간다). 더 근본적으로 사실은 늘 해석과 묶여 있다. 해석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 사실'은 없다. '엄연한 사실'이라 불리는 것도 실은 정교한 역사·과학 이론의 결론일 때가 많다. 더 나쁜 경우는 처음부터 성경의 권위를 거부하는 이론에서 나온 '사실'이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부활하셨음을 부인하는 비평은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전제는 성경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1. 겨자씨는 당시 농부의 경험 안에서 가장 작다
2. 좁은 진술을 보편 진술로 읽는 오해가 많다
3. 성경은 대개 보통 사람의 말투로 말한다
4. 해석이 빠진 '순수 사실'은 없다
5. 기적 부정은 사실이 아니라 전제다

> **마태복음 13:31-32**
>
> 겨자씨 비유. 본문이 말하는 경험 세계를 알면 '사실 오류'가 사라지는 대표 사례
>
> 31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 4. 사실적 일관성의 문제

성경의 한 사실 진술이 다른 진술과 충돌한다는 비판이다. 성경은 많은 저자가 쓴 큰 책이다. 저자들이 완벽히 일치한다면 영감(하나님이 저자들을 움직여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신 일)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비평가들은 일치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겉보기 차이가 전혀 없다면 저자들이 짜고 썼다고

역대기 사이, 신약이 구약 사건을 다시 말할 때가 그렇다. 다루는 방법은 사실 문제와 같다. 이야기의 경험 세계를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문학 형식의 융통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야 시험의 순서가 마태와 누가에서 다르다. 프레임은 이렇게 본다. 마태는 일어난 순서대로 적었고, 누가는 성전 꼭대기 시험을 절정에 두려고 순서를 바꾸었다. 성경은 현대 역사책처럼 늘 시간순으로 쓰지 않는다 (26장). 귀신 들린 사람도 마태는 둘, 마가와 누가는 하나로 기록한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가 "오직 한 명만"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논리적 모순은 없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짐작할 수 있다. 마태가 추가 증언을 들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더 잘 알려졌을 수도 있다. 가능한 설명이 하나라도 있으면 모순이라 할 수 없다. 설명을 하나도 못 찾더라도, 설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다.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셀 수도 없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다. 증명하지 못하는 비평가를 믿을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1. 겉보기 차이는 짜고 쓰지 않았다는 증거다
2. 성경은 늘 시간순으로 쓰지 않는다
3. 한 명만 언급했다고 둘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4. 모순을 주장하려면 설명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5. 결국 누구를 믿을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 **마태복음 4:5-10**
>
> 성전 꼭대기 시험이 두 번째로 나온다. 프레임은 시간순 기록으로 본다
>
>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5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9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

마태복음 8:28-34

귀신 들린 사람 둘. 더 많이 말한 기록

28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29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30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31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32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33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

마가복음 5:1-20

귀신 들린 사람 하나만 언급. '오직 하나'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1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3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누가복음 8:26-39

마가와 같은 평행 본문. 생략은 부정이 아님을 보여 준다

[26]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27]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28]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29]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30]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31]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

📜 5. 인용과 참조의 문제

최근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신약이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이다. 마태복음 2:15는 예수님 가족이 애굽에서 돌아온 일을 호세아 11:1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호세아는 미래의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일을 돌아본 말이다. 그래서 마태가 잘못 인용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프레임의 답은 '성취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플레루에 있다. 이 낱말은 '채우다,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다. 성경에서 '성취'는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것에만 쓰이지 않는다. 마태복음 3:15에서 예수님이 세례로 “모든 의를 이루신” 일에는 성취될 예언이 없다. 마태복음 5:17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도 율법이 단순한 예언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성취'는 흔히 '밝혀 준다', '반영한다', '꼭 들어맞는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셨듯,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도 구하신다. 예수님의 생애는 중요한 순간마다 이스라엘의 경험을 다시 비춘다. 물론 마태복음 12:17-21과 이사야 42:1-3처럼 예언과 성취의 관계인 경우도 있다. 마태복음 8:17과 이사야 53:4는 그 중간이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구속 사역 전체를 말하고, 마태는 그 안에 치유가 포함된다고

예루살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바울은 창세기의 원래 의미를 되살린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비교를 하고 있다. 하갈은 당시 유대교와, 이삭은 그리스도인과 닮았다는 것이다. 설교자가 “여러분은 모세나 베드로 같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피터 엔즈는 신약 저자들이 때로 틀린 결론으로 이끄는 제2성전 시대의 유대 해석법에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다만 엔즈 자신도 그들이 실제로 틀린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는 주저한다. 프레임은 그 시대 해석법의 영향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약 저자들이 특정 방법을 의식적으로 따랐다는 주장은 의심한다. 그리고 영감과 무오성은 잘못된 인용이라는 생각 자체를 배제한다. 그는 신약의 구약 사용을 가장 잘 요약하는 말로 '적용'을 제안한다. 예언 성취, 이야기 사이의 닮음, 알레고리적 예화를 다 포함하는 말이다. 엔즈는 이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성취'는 예언 적중보다 넓은 뜻이다
2.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산다
3. 바울의 알레고리는 원뜻 해석이 아닌 비교다
4. 구약은 예언, 예화, 그림, 율법으로 두루 쓰인다
5. 신약의 구약 인용은 넓은 의미의 '적용'이다

> **마태복음 2:13-14**
> 애굽 피신과 귀환. 인용이 붙은 사건
>
> 13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 **마태복음 2:15**
> 호세아를 '이루려' 하심. 논쟁의 중심 구절
>
>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마태복음 3:15

예언 없이 쓰인 '이루다'. 성취의 넓은 뜻을 보여 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5:17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심. 성취가 예언 적중만이 아님을 보인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2:17-21

예언과 성취가 그대로 맞는 경우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42:1-3

마태복음 12장이 인용한 예언 본문

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2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4

메시아의 구속 사역 전체를 말하는 본문. 그 안에 치유가 포함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4:24-31

하갈과 사라의 알레고리. 원뜻 재생이 아닌 비교의 예

24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 하고 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

창세기 16장

바울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원래 하갈 이야기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

📜 6. 역사적 문제

성경의 종교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위에 서 있다. 영원한 진리나 추상 철학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이것은 현대식 역사 엄밀성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다(26장). 보통 말로 말씀하기로 하신 하나님이 구속 사건과 그 배경을 믿을 만하게 전하신다는 뜻이다. 접근법은 앞의 사실 문제와 같다. 그런데 역사에서는 세속 역사 이론과 부딪치는 일이 더해진다. 그중 일부는 철학적 사변이다. 바우어는 헤겔의 변증법을 신약에 덧씌웠다. 베드로를 정(正), 바울을 반(反), 누가를 합(合)으로 본 것이다. 그 뒤 보수·자유 학자 모두 이런 사변은 신약 연구에 설 자리가 없다고 보았다.
벨하우젠은 이스라엘 종교가 여러 신 가운데 하나를 섬기던 단계에서 고등한 유일신 신앙으로 진화했다고 보았다. 이것은 진화론 틀을 흉내 낸 사변일 뿐 성경에는 근거가 없다. 처음부터 한 분 하나님이 일관되게 계시하셨다는 성경의 설명과도 맞지 않는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이렇게 덧붙인다. 하나님 이름의 쓰임에서 출발한 그의 문서설(J·E·P·D)은 뒤 학자들이 크게 고치거나 버렸고, 지금은 그 시대만큼 확신을 주지 못한다. 덜 철학적인 문제도 있다. 요세푸스 같은 성경 밖 자료를 성경보다 더 믿는 관행이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대부분 복음서를 뒷받침한다. 뒷받침하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의 기록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 고고학도 존중해야 한다. 고고학은 성경을 여러 번 입증했고, 결국 모든 증거가 말씀과 맞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겉보기 충돌이 있으면 고고학 이론이나 성경 해석 가운데 하나를 다시 살핀다. 그래도 고고학은 틀릴 수 있다. 끝내 맞추지 못하면 정직하게 “모르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엔즈는 다른 민족에게도 창조·홍수 이야기와 성전·제사장·법전이 있다는 것을 문제로 여겼다. 프레임은 영감이 성경에 그런 '독특성'을 요구하지 않고, 참됨만을 요구한다고 답한다. 창조와 홍수가 실제 사건이라면 여러 문화에 조금씩 왜곡되어 전해진 것은 자연스럽다. 하나님이 나중에 자기 백성에게 왜곡 없는 설명을 주신 것도 이상하지 않다. 성경의 독특함은 모든 내용이

논쟁을 더 보여 준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지 진리의 차이가 아니다. 요한복음 21:25처럼 누구도 예수님을 다 그려 낼 수 없다. 사복음서는 서로 채워 준다. 마지막으로 '상이성의 방식'이 있다. 초대교회의 관심사와 닮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가 아니라고 보는 비평 원칙이다. 이 원칙은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시고, 앞날을 준비하셨으며, 교회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 했다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처음부터 무시한다.

1. 성경의 종교는 실제 사건 위에 서 있다
2. 바우어와 벨하우젠의 이론은 철학적 사변이다
3. 고고학은 존중하되 최종 판정자는 아니다
4. 영감이 요구하는 것은 독특함이 아니라 참됨이다
5. 강조점의 차이는 모순이 아니라 보완이다

> **요한복음 21:25**
>
> 예수님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고백. 복음서마다 다른 강조가 모순이 아닌 이유
>
>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 7. 장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실제 역사를 기록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야기 형식이지만 실제 사건을 말하지 않는다. 씨 뿌리는 자가 “몇 월 며칠에” 나갔냐고 묻는다면 비유를 완전히 잘못 읽은 것이다(마태복음 13:3). 비유도 진리를 전하지만, 그 진리가 역사적 사건은 아니다. 그래서 장르(글의 종류)를 알아야 본문이 문자 그대로의 역사를 주장하는지, 다른 것을 주장하는지 알 수 있다. 욥기를 극적 허구로 보는 견해는 검토할 만하다. 판단하려면 기록 연대, 당시 문학 형식, 본문 안의 단서를 따져야 한다. 프레임 자신은 욥기가 실제 사건을 다루되, 히브리 시와 극에 능한 사람이 실제 욥과 친구들의 말을 전했다고 본다. 전도서를 두고는 많은 보수 학자들이 '솔로몬'을 문학 장치, 곧 1인칭 허구로 본다. 프레임은

사흘에 거기 살 것들을 채우신다. 프레임은 창세기 1장이 시편 같은 히브리 시는 아니라고 본다. 문학적 기교는 분명히 있지만, 그 기교가 문자적 해석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성경 전체가 비유나 시라서 역사를 전혀 주장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터무니없다고 본다. 성경의 구원론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관한 교리이기 때문이다. 비역사적 이야기는 예외일 뿐 일반 규칙이 아니다. 그러니 어떤 부분이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그 증거도 성경적 세계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증거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논의는 자율성(성경보다 내 판단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 태도) 없이, 성경의 주장을 믿으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1. 비유처럼 비역사적 이야기도 진리를 전한다
2. 장르를 알아야 본문의 주장을 안다
3. 욥기와 전도서는 증거를 따져 판단할 문제다
4. 창세기 1장의 기교가 문자 해석을 막지 않는다
5. 비역사성을 주장하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다

> **마태복음 13:3**
>
> 씨 뿌리는 자 비유. 이야기 형식이라도 역사를 주장하지 않는 장르의 예
>
>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 **창세기 1장**
>
> 6일의 짝 구조. 문학적 기교와 문자적 해석이 함께 갈 수 있는지의 시험대
>
>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

성경은 대부분 보통의 언어로 말한다. 전문 과학 용어로 말하지 않고, 과학 교과서도 아니다(26장).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주제를 우리가 정해 드릴 수는 없다(27장). 그래서 성경이 과학과 닿는 문제를 말할 때도 그 말은 참이다. 가장 많이 다투는 곳은 창세기의 창조와 홍수다.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시라면, 엿새가 짧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빛(창세기 1:3)이 해와 별(창세기 1:14-19)보다 먼저 있다는 것도 그렇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체와 따로 빛 알갱이를 만드실 수 있다. 더 무거운 문제는 창세기 1장과 5장·11장의 족보를 합치면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의 '젊은 지구'가 나온다는 것이다. 프레임은 '성숙한 피조물'과 함께하는 문자적 6일 창조를 지금도 가장 합리적인 해석으로 본다. 성숙한 피조물이란 별, 화석, 아담과 하와가 실제보다 나이 들어 보이게 창조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날을 긴 기간으로 보는 견해나, 연대를 주장하지 않는 '문학적 틀'로 보는 견해를 무책임하다고 할 만큼 확신하지는 않는다. 무오성은 답이 늘 쉽다는 뜻이 아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문자적으로 읽으라는 뜻도 아니다. 무오성은 바르게 해석하라고 요구하고, 바르게 해석한 본문이 진리를 전한다고 말한다. 무오성이란 본문이 주장하는 바에 충실하다는 뜻이다(26장). 따라서 질문은 이것이다. 창세기 1장은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가, 오랜 지구를 허용하는가, 아니면 연대를 아예 말하지 않는가? 이것은 어휘와 문법을 따지는 주석의 문제다. 어느 해석도 과학과 어긋난다고 입증되지 않는다. 긴 날과 틀 해석은 젊은 지구를 함축하지 않는다. 문자적 해석은 젊은 지구를 함축하지만, 성숙한 피조물을 고려하면 하나님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시간 틀에서 엿새가 피조물의 관점에서는 수십억 년으로 보인다는 제안도 있다. 해석의 가능성도 여럿이고 과학의 가능성도 여럿이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참일 수 있다면, 성경의 창조론이 틀렸다고 말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프레임은 여기서 세 원칙을 끌어낸다. 본문의 다른 해석을 고려할 것, 다른 과학적 가능성을 고려할 것, 내 원칙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말고 '계시의존사색'(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함)을 하려 하는지 돌아볼 것. 각주에서 이 셋을 규범·상황·실존의 원칙이라 부른다. 과학 자체도 성경의 인격적 하나님을 전제한다. 우주가 근본적으로 비인격적이라면 자연이 일정하다고 볼 근거도,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하고 찾을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1.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지만 과학 주제도 참이다
2. 하나님이 말씀하실 주제를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
3. 무오성은 '최대한 문자적'이 아니라 '바른 해석'이다

5. 과학 자체가 인격적 하나님을 전제한다

창세기 1:3

첫째 날의 빛. 천체 이전의 빛이라는 질문의 출발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14-19

넷째 날의 해·달·별. 빛보다 나중에 오는 천체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6일 창조. 젊은 지구, 긴 날, 문학적 틀 해석이 갈리는 본문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

창세기 5장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 연대 계산에 쓰이는 자료

1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 아담은

하였고 [4]아담은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그는 구백삼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6]셋은 백오 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

창세기 11장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젊은 지구 계산의 다른 축

[1]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

📜 9. 날짜, 저자, 배경의 문제

보수와 자유 진영의 무오성 논쟁은 상당 부분 연대·저자·배경을 두고 벌어졌다. 모세오경(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다섯 권)은 모세가 썼는가? 이사야서 전체를 주전 8세기의 이사야가 썼는가? 다니엘서는 포로 귀환 전에 기록되었는가, 후에 기록되었는가? 바울 서신은 모두 바울이 썼는가? 프레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무오성은 성경이 '주장하는 바'가 참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연대와 저자에 대한 성경의 주장은 늘 분명하지 않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에스더, 욥기는 저자를 밝히지 않는다. 복음서, 사도행전, 히브리서도 엄밀히는 익명이다. 다만 누가복음 1:1-4, 요한복음 21:24, 사도행전 1:1-3은 저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초대교회의 뿌리 깊은 전통도 있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요한복음의 '요한'이 사도 요한과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이 그 예다. 오경은 모든 내용을 모세가 썼다고 말하지 않는다. 가장 보수적인 학자들도 민수기 12:3이나 모세의 죽음을 다룬 신명기 34장은 다른 사람의 기록으로 본다. 그러나 오경은 모세를 율법을 글로 전한 사람으로 소개한다(출애굽기 34:27-28, 신명기 31:24-

부르듯 한 사회적 관례였을까? 소설 속 아합 선장이나 동화 속 피터 래빗처럼 말이다. 프레임은 아니라고 본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당시 유대 공동체는 모세가 (몇 부분을 빼고) 실제 저자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것이 그들의 주장이므로 우리도 믿어야 한다. 이사야서, 욥기, 전도서도 같은 질문으로 다루어야 한다. “성경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때로는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질문을 정확히 세우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1. 무오성은 성경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교리다
2. 저자를 밝히지 않은 책이 많다
3. 오경 일부는 모세 이후 기록일 수 있다
4. 예수님과 사도들은 모세 저작을 실제로 믿었다
5. 모든 난제의 열쇠는 “성경은 무엇을 주장하나”다

> **누가복음 1:1-4**
> 익명의 책이지만 저자 판단에 도움을 주는 서문
>
> 1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 **요한복음 21:24**
> 기록한 제자를 증언하는 구절. 저자 논의의 단서
>
>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 **사도행전 1:1-3**
> 누가복음과 같은 저자임을 시사하는 서문
>
> 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민수기 12:3

모세의 겸손을 말하는 구절. 보수 학자도 다른 손의 기록으로 보는 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과 애도. 모세가 쓰지 않았을 부분의 대표 예

1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2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3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 벳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

출애굽기 34:27-28

모세가 율법 기록에 직접 참여했다는 근거

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신명기 31:24-29

모세가 율법을 책에 써서 언약궤 곁에 두게 함. 모세 저작의 근거

24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25 모세가 여호와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28]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29]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8:4

예수님이 율법 규정을 '모세가 명한' 것으로 말씀하심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7-8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모두 이혼 규정을 모세의 말로 다룸

[7]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22:24

사두개인이 계대결혼법을 “모세가 일렀으되”로 인용함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성경 안에서 서로 맞지 않거나 틀려 보여 설명이 필요한 곳.

무오성
성경이 주장하는 바에 틀림이 없다는 교리. 프레임은 '본문이 주장하는 것에 충실함'으로 정의한다(26장).

신비
하나님이 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모순이나 오류와는 다르다.

모순
같은 것을 같은 뜻, 같은 때, 같은 측면에서 긍정하면서 동시에 부정하는 것.

자율성(자율적 이성)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이성을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는 태도.

순수 사실
해석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사실. 프레임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본다.

성취(플레루)
헬라어로 '채우다, 완성하다'. 예언 적중뿐 아니라 '반영하다, 들어맞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알레고리
이야기 속 인물이나 사물을 다른 실재를 가리키는 그림으로 읽는 방식.

장르
글의 종류. 역사 기록인지, 비유인지, 시인지, 극인지를 가리킨다.

성숙한 피조물
하나님이 별, 화석, 사람을 처음부터 실제보다 나이 들어 보이게 창조하셨다는 견해.

계시의존사색
내 원칙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태도.

상이성의 방식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의 난제는 실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뒤엎을 만큼 무겁지 않다.
- 모순이라고 주장하려면 같은 뜻·같은 때·같은 측면임을 보이고, 가능한 설명이 하나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 많은 '사실'과 '과학적 결론' 뒤에는 기적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배제하는 전제가 숨어 있다.
- 장르, 보통 언어, 넓은 의미의 성취,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면 많은 난제가 풀린다.
- 모든 난제 앞에서 던질 질문은 하나다. “성경은 실제로 무엇을 주장하는가?”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6편 · 모순처럼 보이는 곳들 · 성경의 문제들에 답하기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